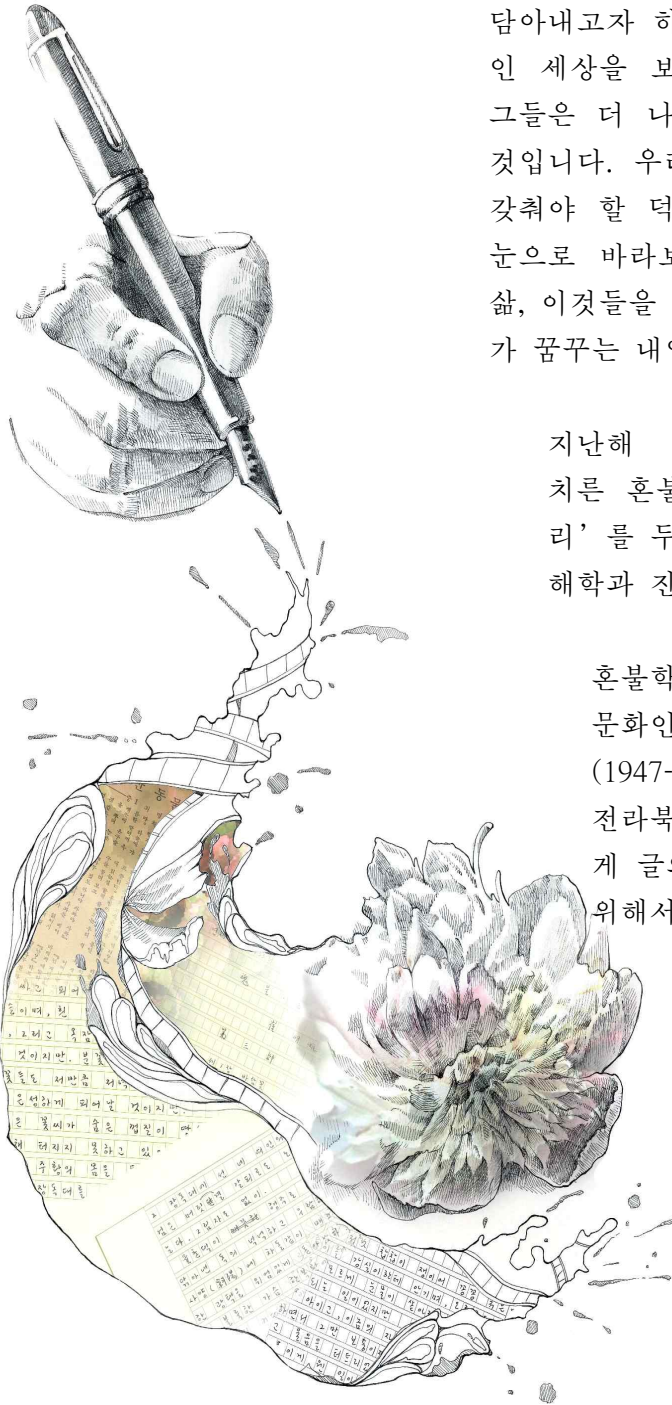


제2회 혼불학생문학상

세상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의 글에는 세상을 담아내고자 하는 꿈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세상을 보다 진솔하게 읽어내는 감수성으로 그들은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먼저 갖춰야 할 덕목도 여기에서 찾아집니다.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그 마음으로 읽어내는 삶, 이것들을 오로지 정직한 글로 풀어낼 때 우리가 꿈꾸는 내일의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해 ‘새만금’을 테마로 제1회 대회를 치른 혼불학생문학상은 올해 ‘전라도 사투리’를 두 번째 테마로 정했습니다. 사투리는 해학과 진실이 넘치는 문화유산입니다.

혼불학생문학상은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1947-1998)의 삶을 통해 문학의 고장인 전라북도의 자부심을 높이며, 청소년들에게 글의 가치와 바른 글쓰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 주최: 전주문화방송
- 주관: 혼불기념사업회 · 최명희문학관
- 후원: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문인협회 · 전북작가회의

제2회 혼불학생문학상

시방, 거시기, 쫄개, 피복쟁이, 깨금박질, 빠꾸매기, 반도름하다, 사랑잠, 아슴차다, 등계, 뽕따먹기, 또랑, 땅개비, 깨구락지, 칼시엄……. 텃자리·쌈터에서 나고 자라며 써왔던 코 묻은 말, 듣는 순간 꽃불 같은 추억이 되살아나는 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들녘, 산골짜기, 갯벌, 전라도 산야 어디를 가든 잠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전라도의 혼이 붕울붕울 피어날 겁니다.

- 주제: ‘전라도 사투리’
- 형식: 산문(수필·소설 등)
- 내용: 아래의 내용 중 선택해서 집필
 - 「혼불」 등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전라도 사투리를 소재로 활용
 -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전라도 사투리에 대한 에피소드 및 감상
 - 어느 특정한 전라도 사투리를 소재로 쓴 글
 - 전라도 사투리만을 가지고 쓴 글 등등
- 분량: A4용지 2-3장(200자 원고지 15매-20매)
- 대상: 전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공모 및 접수 : 5월 1일 - 7월 29일
- 접수: 이메일 접수(jeonjuhonbul@nate.com) 및 방문·우편(최명희문학관) 접수
 - 작품제목과 학교, 학년,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글의 표지에 작성
 - 지도교사가 있을 경우는 함께 표기해야 함.
- 문의: 063-284-0570 /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풍남동 3가 67-5)
- 시상내역

상명	숫자	시상내역	상격
대상	1명	상장, 상금 200만원	전라북도교육감상
차상	2명	상장, 상금 100만원	전라북도교육감상
차하	4명	상장, 상금 50만원	전주문화방송사장상
가작	10명	상장, 상금 20만원	전주문화방송사장상
장려	15명	상장, 상금 10만원	전주문화방송사장상
지도교사상	5명	상장, 상품(30만원 상당)	전라북도교육감상

